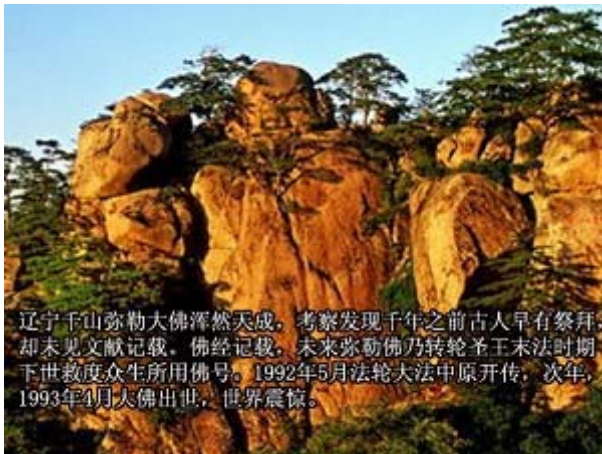




## 천산의 미륵대부처상



1992년 5월에 사부님께서 법륜대법을 중원에 전한지 1년도 안되는 1993년 4월, 료녕 안산의 천산풍경구에 천년거석으로 이루어진 미륵대부처상(윗 사진)이 정식으로 공개되자 전국을 놀래웠다.

높이 70미터, 어깨너비 46미터, 머리높이 10미터, 머리넓이 큰 12미터, 귀길이 큰 5미터인 미륵상을 바라보면 마치 거인이 못산정에 앉아 있는 것만 같다. 두눈, 두손, 가슴에 드리운 부처구슬, 배꼽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둥글고 빛나는 머리높이는 3층집 같았고 온통 푸른 이끼가 자란 짙은 눈썹아래에 정기 도는 두눈과 오관의 위치는 비례가 알맞고 펼쳐진 왼손가락은 무릅우에 올려놓았고 주먹을 쥐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제일 아래부분엔 넓고 큰 발이 놓여있었다. 이 미륵부처상의 모든 것은 하늘이 만든 것이어서 실로 장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하여 법의 위력이 차넘쳤다. 불경에 기재된 데 의하면 말법시기에 전륜성왕이 미륵불로 전생하여 인간에서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도한다고 하였다.

## “서법전람회”를 꾸린 것이 죄가 되나?



산둥성청도시 파룬궁 학원이며 저명한 서법가인 류석동(刘锡铜, 사진)은 금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청도시출판예술관에서 서법예술전람회를 꾸려 관중들의 환영과 시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11월 12일, 청도시 “610”사무실의 지시를 받은 상담로파출소 악경들은 그를 납치해가고 컴퓨터와 프린터, 서법작품들을 빼앗아갔다. 이튿날, 상담로파출소에서 그에게 “사고를 리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터무니 없는 죄명

## “남을 위해 살다” 평화상을 수여받은 장취영(张翠英)

2007년 10월 27일, 시드니 하빈극장에서 “세계 평화연맹”은 파룬궁학원이며 저명한 여화가인 장취영에게 “남을 위해 살다”는 평화상을 수여했다. (사진) 그는 40여개 국가에서 선후로 장취영미술작품전시회를 꾸렸다. 1999년에 그는 파룬궁을 런마했다는 루명으로 중국에서 8개월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2002년 1월, 그는 자신의 그림을 판돈 3천달러를 흔쾌히 삼림화재 난민들에게 기부했다.



## 체코 국경일에 진상을 알린 유럽천국악단



2007년 11월 17일, 체코 국경일에 유럽 파룬궁 학원들로 조직된 천국악단은 프라하에서 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우렁차고 장엄한 <파룬따파 좋다> 등 악곡을 연주하면서 파룬궁의 진상을 알렸다. (왼쪽 사진)

## “쩐싼런국제미술전람작품집”을 뉴질랜드 국회에 보관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대법제자법증 실촬영전람회”가 열렸다. 뉴질랜드여왕이 친히 파견한 총독 Anand Saty를 회견할때 “쩐싼런국제 미술전람작품집”을 그에게 증정하고나서 중공이 박해진상을 이야기했다. 그는 진상을 상세히 듣고 나서 <옛 관례대로 이 레물을 국회에 보관하여 국회의 모든 사람들이 열독하고 감상하게 하겠다.> 고 말했다.



을 씌워 한달간의 형사구류를 시킨후 청도시 대산제 1간수소에 보냈다. 사악한 중공은 멸망의 마지막 광기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중공에서의 탈당은 곧 우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